

韓國 · 臺灣 · 日本의 主要 通商政策 比較

註：本稿는 韓國貿易協會에서 발행한 「韓國·台灣·日本의 主要 通商政策 比較」 중에서 요약 부분을 발췌, 게재하니 효율적인 활용을 바란다.

1. '80年代 전·후반 貿易의 특징

가. 輸 出

○韓國, 台灣, 日本 모두 '80年代 후반의 輸出伸張率이 전반의 2 배에 달하는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음. 특히 韓國은 가장 높은 輸出伸張率을 기록하여 '88年 들어 總輸出規模面에서 처음으로 台灣을 앞질렀음.

[地域別 輸出]

○對美：韓國의 對美輸出增加率은 '80年代 후반들어 전반보다 더 확대되었으나 日本과 台灣은 반대로 둔화

○對日：韓國·台灣 모두 '80年代 후반들어 대폭 증가하였으나 韓國이 台灣보다 다소 높은 수준 기록

○對EC：'86年이후 3国 모두 '80年代 전반에 비해 대폭적인 輸出伸張을 나타내고 있음. 특히 台灣이 가장 높은 伸張率을 기록하였으며 '86年 이후에

地域別 輸出 推移

(百万弗, %)

		1980	1984	1985	1988	年平均 增加率	
						'80~'84	'85~'88
韓國	總 輸 出	17,344	29,245	30,283	60,696	14.0	26.1
	對 美	4,607	10,479	10,754	21,404	22.8	25.8
	對 日	3,039	4,602	4,543	12,004	10.9	38.2
	對 EC	2,539	3,217	3,246	8,132	6.1	35.8
	其 他	7,159	10,947	11,740	19,156	11.2	17.7
台灣	總 輸 出	19,811	30,456	30,723	60,587	11.4	25.4
	對 美	6,760	14,868	14,773	23,427	21.8	16.6
	對 日	2,173	3,186	3,461	8,768	10.0	36.3
	對 EC	2,539	2,805	2,725	8,841	2.5	48.0
	其 他	8,339	9,597	9,764	19,551	3.6	26.0
日 本	總 輸 出	129,807	170,114	175,638	264,866	7.0	14.7
	對 美	31,367	59,937	65,278	89,612	17.6	11.1
	對NICS ¹⁾	19,186	24,382	22,491	49,784	6.2	30.3
	對 EC	16,650	19,405	20,793	46,867	3.9	31.1
	其 他	81,790	90,772	67,076	78,603	2.6	5.4

註：1)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는 輸出規模面에서도 韓國을 상회하고 있음.

나. 輸 入

○ 韓國, 台灣, 日本 모두 '80年代 후반의 輸入이 전반에 비해 대폭 확대되었으나 특히 輸入擴大政策을 꾸준히 추진해 온 台灣의 輸入伸張率이 韓國·日本을 크게 상회

[地域別 輸入]

○ 對美: '80年代 후반들어 3國 모두 전반에 비해 輸入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台灣이 가장 높은 伸張率을 기록하였으며 이에 따라 '88年中에는 규모면에서도 처음으로 台灣이 韓國을 앞섰음.

○ 對日: 韓國·台灣 모두 '80年代 후반들어 크게 증가하였으나 台灣의 伸張率이 韓國을 크게 상회하였음.

○ 對EC: '80年代 전반에 비해 3國 모두 크게 확대되었으나 台灣이 가장 높은 增加率을 기록하였으며 이에 따라 '88年中에는 규모면에서도 처음으로 台灣이 韓國을 상회

다. 貿易収支

○ 韓國, 台灣, 日本 모두 '80年代 전반에 비해 흑자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으나 특히 韓國의 경우

'86年中 처음으로 黒字를 기록한 이후 '88년까지 대폭 확산된데 반해 台灣은 '86년이후의 수입확대 노력에 힘입어 '88年中 黒字幅이 크게 감소되었으며 日本도 '86년을 정점으로 黒字減少 추세를 나타냈음.

地域別 貿易収支 推移

(百万弗)

		1985	1986	1987	1988
韓國	總 収 支	△853	3,130	6,261	8,886
	對 美	4,265	7,335	9,553	8,647
	對 日	△3,017	△5,444	△5,220	△3,925
	對 EC	188	1,090	1,983	2,090
	其 他	△2,289	149	△57	2,074
台灣	總 収 支	10,621	15,625	18,654	10,938
	對 美	10,027	13,579	16,031	10,425
	對 日	△2,088	△3,710	△4,862	△6,057
	對 EC	666	1,576	2,767	2,689
	其 他	△2,016	4,180	5,149	3,881
日本	總 収 支	46,099	82,743	79,706	77,392
	對 美	39,485	51,402	57,090	47,613
	對NICS ¹⁾	12,652	17,546	20,641	24,790
	對 EC	11,495	16,686	20,023	22,798
	其 他	△17,533	△2,891	△13,048	△17,809

註: 1)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地域別 輸入 推移

(百万弗, %)

		1980	1984	1985	1988	年平均 增加率	
						'80~'84	'85~'88
韓 国	總 輸 入	22,139	30,631	31,136	51,811	8.5	18.5
	對 美	4,890	6,875	6,489	12,757	8.9	25.3
	對 日	5,858	7,640	7,560	15,929	6.9	28.2
	對 EC	1,584	2,713	3,058	6,042	14.4	25.5
	其 他	9,807	13,403	14,029	17,083	8.1	6.8
台 湾	總 輸 入	19,733	21,959	20,102	49,650	2.7	35.2
	對 美	4,673	5,042	4,746	13,002	1.9	39.9
	對 日	5,353	6,442	5,549	14,824	4.7	38.8
	對 EC	1,614	1,963	2,059	6,152	5.0	44.0
	其 他	8,093	8,512	7,748	15,672	1.3	26.5
日 本	總 輸 入	140,528	136,503	129,539	187,474	△0.7	13.1
	對 美	24,408	26,862	25,793	41,999	2.4	17.6
	對NICS ¹⁾	7,366	10,134	9,839	24,994	8.0	36.4
	對 EC	7,842	9,334	9,298	24,069	4.5	37.3
	其 他	108,278	100,307	84,609	96,412	△1.9	4.4

註: 1)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地域別 収支]

- 対美: 3国 모두 전반에 비해 흑자규모가 대폭 확대되었으나 '87년을 고비로 감소추세를 시현하였으며 특히 台湾의 경우 큰 폭으로 감소
- 対日: 韓國의 경우 '86년까지 적자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된 이후 대폭적인 개선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비해 대만은 전반에 비해 적자규모가 오히려 크게 확대
- 対EC: 3国 모두 전반에 비해 흑자규모가 대폭 확대

2. 分野別 通商政策 比較 및 示唆点

가. 分野別 通商政策 比較

1) 商品市場 開放 노력

○ 3国中 韓國의 시장개방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됨.

- 韓國의 관세 수준이 가장 높고 輸入自由化率이 가장 낮는데다 特別法에 의한 수입제한 요소도 韓國이 가장 많음.

2) 国別 貿易収支 불균형 시정 노력

○ 対日 貿易逆調 시정 노력에서는 韓國이 台湾을 競争国과의 商品市場 開放 水準(1988) 比較 (%)

	韓國	台灣	日本
平均 関稅率	18.1(16.9)	11.7(9.5)	5.9(4.6) ¹⁾
輸入自由化率	94.6	98.5	97.0 ²⁾
非関稅障壁 ³⁾ 을 제외한 實質輸入自由化率	72.1	89.7	-
非関稅障壁水準 ⁴⁾	24.0	11.2	

()内는 工產品 名目関稅率

- 註: 1) 1987年 GATT 讓許稅率
 2) 1982年 이후 발표하지 않고 있음.
 3) 特別法中 수입자격 및 지역제한과 수입추진·승인품목만 計上
 4) 總輸入品目數中 特別법에 의한 輸入制限 품목수의 비중(韓國은 '89年 1月, 台灣은 '88年 2月 기준)

対日 貿易 推移

(%)

	韓國	台灣
輸出增加率('85~'88年 平均)	38.2	36.3
輸入增加率(")	28.2	38.8
貿易赤字額('88年中)	△39.3億弗	△60.6億弗
" ('87年 対比)	13.0億弗 縮小	12.0億弗 拡大

앞서고 있으나 出超国인 美国 및 EC 諸国으로 부터의 수입확대 노력에서는 台湾에 뒤지고 있음.

- 対日 貿易赤字: 韓國은 '87年 이후 큰 폭의 개선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台湾은 큰 폭의 확대 추세 지속

- 対美·EC 貿易黒字: 韓國은 '88年中 前年比 소폭 감소 내지 확대된데 비해 台湾은 兩地域에 대해 공히 감소

• 특히 日本은 시장개방문제 苦情處理本部(O.T.O.)를 설치('82年 2月) 운영하여 '89年 2月 14日 현재 371件的 에로사항을 접수, 359件을 처리하였으며 또한 매년 10月을 輸入擴大의 달」로 지정하는 등 輸入促進活動을 전개하여 왔음.

対美·対EC 貿易 推移

(%)

	對 美		對 EC	
	韓國	台灣	韓國	台灣
輸入增加率('85~'88年 平均)	25.3	39.9	25.5	44.0
貿易黒字額('88年中, 億弗)	86.5	104.3	20.9	26.9
	9.1	56.1	1.1	0.8
貿易黒字額('87年 対比)	億弗 縮小	億弗 縮小	億弗 拡大	億弗 縮小

나. 輸出市場 多邊化 노력

○ EC 및 기타지역 등에 대한 輸出 확대 노력에서 전반적으로 台湾 및 日本에 뒤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対EC 輸出擴大: 수출규모 및 伸張率面에서 韓國이 台湾 수준을 하회하고 있으며 總輸出中 對EC 輸出 비중도 台湾, 日本 수준을 하회

- 対其他地域 輸出擴大: 수출규모, 伸張率 및 總輸出中 비중 모두 韓國이 台湾 수준을 하회

• 対東歐地域 輸出擴大: 수출규모면에서는 韓國이 台湾을 앞서고 있으나 伸張率面에서는 台湾이 韓國을 크게 상회

다. 海外投資 擴大 努力

○ 韓國이 전반적으로 台湾, 日本에 뒤지고 있음.

- 특히 台湾의 경우 정부주도로 지역별 투자확대 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88年들어 海外投資規模 및 增加率面에서 처음으로 韓國 수준을

对EC·기타地域 輸出 推移

(百万弗, %)

		韓 国	台 湾	日 本
对 EC	輸出伸張率('85~'88年 平均)	35.8	48.0	31.1
	輸出規模('88年)	8,132	8,841	46,867
	總輸出 中 比重('85~'88)	10.7~13.4	8.9~14.6	11.8~17.7
기 타 地 域 ^{b)}	輸出伸張率('85~'88年 平均)	17.7	26.0	5.4
	輸出規模('88年)	19,156	19,551	78,603
	總輸出 中 比重('85~'88) →	38.8~31.6	31.7~32.3	38.2~29.7
	(对東欧 7国)			
	輸出伸張率('86~'87)	51.7	109.7	△13.8
	輸出規模('87年)	102	69	592

註: 1) 韓国·台湾은 美国, 日本, EC, 日本은 美国, EC, 아시아 NICS를 각각 제외한 지역

地域別 海外投資 現況

(百万弗)

	韓 国	台 湾	日 本
總 投 資	1,360	552	139,334
1985~'88.10	851	379	67,901 ^{b)}
'85	118	41	12,217
'86	172	51	22,320
'87	397	103	33,364
'88.1~10	164(△55.8)	178(△119.8)	-

()内는 前年同月比 增加率(%)

註: 1) '85~'87年中

상회하였음.

- 더욱이 정부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공식적인 對外投資 규모를 감안할 경우 台湾의 海外投資는 韓国 수준을 대폭 상회

韓·台湾의 对아세안 3国 投資 比較

(被投資國 統計 基準)

(百万弗)

	1987		1988		
	韓國	台湾	韓國(A)	台湾(B)	B/A(배)
对 泰 国	89	563	141	2,088	14.8
对말레이시아	4	65	18	329	18.3
对인도네시아	23	8	217	914	4.2

라. 換率 政策

○韓國은 換率 운용에 있어 美 달러 貨에 대한 명목 切上 幅만을 지나치게 강조, 元貨의 高評價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실질실효환율에 기초하여 균형 수준을 유지해 온 台湾 등에 비해 輸出商品의 경쟁력이 크게 低下

主要国 通貨의 切上 推移

	1985.9/20	1988末	切上幅(%)
₩ / 弗	892.20	684.10	30.4
NT弗 / 弗	40.40	28.17	43.4
¥ / 弗	238.05	124.95	90.5

- 美 달러 貨에 대한 韓国 元貨의 명목 切上 幅은 台湾, 日本 수준을 크게 하회

- 그러나 실질실효환율을 기준으로 한 實質通貨 切上 幅은 韓国이 15.2%로 台湾 수준(3.5%)을 대폭 상회

韓·台湾의 實質實效換率 比較

('85.9=100, 月平均)

	韓 国	台 湾
1985.12	93.1	95.4
1988.12	115.2	103.5

資料: 모건 캐런티 銀行, "World Financial Markets" ('88年 12月)

마. 對外 弘報 및 로비 활동

○韓國政府 및 企業의 對外 弘報 및 로비 활동은 그 조직 및 예산 규모에서 日本·台湾 등 경쟁국에 비해 매우 취약

- 對外 弘報活動: 政府 및 企業의 對外 弘報 및 광고비 지출 등에서 日本 수준을 크게 하회

- 对美 로비 활동: 对行政部 및 議회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각계인사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로비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台湾 이나 막대한 資金力을 바탕으로 言論媒体 등을 통해 우호적 輿論조성에 노력하고 있는 日本에 비해 매우 취약

韓·日 海外弘報 規模의 比較

(億원)

韓 国		日 本	
機 関 名	予 算 額	機 関 名	予 算 額
商 工 部	- ('88)	通 産 省 広 報 室 ³⁾	1.3 ('88)
外 務 部 ¹⁾	373 ('88)	外務省文化館, 國際報道課	385 ('83)
文 公 部 海 外 公 報 課	82 ('88)	總 理 部 広 報 室	25 ('83)
K O T R A	123 ('88)	J E T R O	1,227 ('87)
韓 国 貿 易 協 會 ²⁾	42 ('88)	海 外 広 報 協 會	55 ('88)
学術振興財団國際交流部	5.9 ('88)	國 際 交 流 財 団	2,942 ('88)
國 際 文 化 協 會	25 ('88)	科 技 庁, 總 務 庁	89 ('83)
國 際 觀 光 公 社	6.8 ('88)	國 際 觀 光 振 興 會	127 ('83)
經 濟 社 會 開 發 院	- ('88)	經 濟 広 報 센 터	72 ('88)
韓 美 經 濟 協 議 會	4 ('88)	地 方 自 治 団 体	212 ('83)
文 教 部	30 ('88)	文 部 省 ⁴⁾	2,557 ('83)

註: 1) 外務部는 외교활동비 예산액임.
 2) 韓國貿易協會는 대외통상교섭비
 3) 通産省 広報室의 해외홍보용 인쇄물
 4) 文部省 國際教育, 學術文化, 유네스코, OECD, 국제회의 등의 총계

競争国과의 对美 로비 活動 比較

	韓 国	台 湾	日 本
○로비 목적	안보, 通商	안보, 通商	通 商
○로비 규모			
- 자금규모 ('84)	32.2万弗	24.9万弗	'88年中 3億弗 推定 ¹⁾
- 고용 로비스트 ('85)	27名	31名	119名
- 워싱턴 주재 대사관 직원수 ('85)	22名	30名	80名
○특 징	○少数精銳 및 의회의 소수 고위인사에 편중 ○로비 역사의 일천 ○로비 기반 빈약	○각계인사에 처한 초청 외교 ○대중매체 기고를 통한 홍보 ○購買使節團의 효율적 활용 ○은밀·온건적 ○美國内 화교를 통한 로비 기반 구축	○정계거물을 로비스트로 고용 ○각단체별로 독립적 전개 ○막대한 資金 支援 ○언론매체를 중심으로 日本企業에 처한 우호적인 여론 조성

註: 1) Business Weekly, 1988.8

競争国的 機關別 对美 로비스트 採用 比較 ('85)
(名)

	韓 国	台 湾	日 本
政府機關	4	4	9
企 業	14	11	70
航 空 社	8	0	2
貿 易 団 体	8	16	38
合 計	27	31	119

資料: 美會計監査院(GAO)報告書

바. 綜合評價 및 示唆点

1) 綜合評價

○'80年代 후반들어 韓國, 台湾, 日本 3国 모두 貿易収支黑字가 급속히 확대되는 가운데 對外通商摩擦의 심화로 상품시장 개방 확대, 輸出국으로부터의 輸入擴大, 換率 조정 등을 통한 貿易収支 불균형 시정 노력과 함께 輸出市場 다변화 및 海

外投資 확대에 주력하여 왔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對日 貿易逆調 개선 및 對共產圈 교역 확대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한 商品市場開放, 出超國으로부터의 輸入擴大, 輸出市場 다변화, 海外投資 확대 등에서 전반적으로 台灣·日本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특히 1992年 歐洲 통합에 대비한 對EC 진출 그리고 對美·對EC 輸入擴大를 통한 貿易收支 불균형 시정, 海外投資 확대 등의 노력에서 台灣 및 日本에 크게 뒤지고 있음.

2) 示唆點

가) 對外 通商摩擦 해소

○ 실질적인 商品市場의 개방 확대를 통한 대외신뢰도 회복

- 台灣은 輸入許可 면제 대상품목을 확대(總輸入品目中 비중: '88年 43.0%→'89.1月 66.8%) 하는 한편 特別法에 의한 輸入制限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輸入開放에 대한 對外 인식을 제고

• 韓國: 特別法에 의한 制限品目を 輸出入公告와는 별도로 統合公告에 의해 공고함으로써 外國의 입장에서 볼 때 수입제한 여부가 불투명

• 台灣: 매년 「中華民國 海關進口稅則·進出口貨品分類表」에 CCCIO 단위를 기준으로 關稅率과 함께 제한품목을 유형별로 코드화하여 명시하고 있어 輸入制限 여부의 식별이 용이

- 반면 韓國의 關稅 및 非關稅障壁은 경쟁국인 台灣, 日本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實質 輸入自由化率 또한 상대적으로 낮아 이들 국가에 비해 시장개방압력을 많이 받아 왔음.

• 특히 韓國의 경우 輸入自由化品目中 特別法에 의한 수입제한품목의 비중이 높음.

○ 通商懸案에 대한 정기협의 채널 구축 및 협상창구의 일원화를 통한 對外通商活動의 효율성 제고

- 日本은 對外通商懸案에 대한 정기적인 협의를 위한 협상 채널 구축

(1) 對美 協商 채널

• 日·美 高位級實務協議: 1977年 9月 1日 협

의회가 개최된 이후 '87年 10月까지 14회 개최

• 日·美 貿易小委員會: 第4回 日·美 고위급 실무협의회에서 개최에 합의(무역문제 관련) 하여 '87년까지 13회 개최(日·美 通商貿易懸案에 대한 협의 및 日本側 노력 설명)

• 日·美 通商摩擦協議機構 설치 움직임: 日·美 간 經濟·通商摩擦을 일원화하여 종합적인 해결 모색

* '88年 가을 美國의 버드 상원의원이 다케시타 日本首相에 日·美간 종합적인 통상문제를 취급하는 새로운 협의체 구성을 제의한 이후 현재 兩國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중

- 台灣은 對美 通商業務의 效率性 제고를 위한 協商窓口를 일원화

• 對外通商政策: 行政院 中·美 貿易專擔小委員會 관장

• 實務交涉: 台灣의 北美事務所協調委員會 (CCNAA)와 台灣 駐在 美國協會 (AIT)간 협상

○ 對外貿易 불균형 해소를 위한 政府의 확고한 의지 표명

- 台灣과 日本政府는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市場開放 확대 및 對外貿易 불균형 시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對外協商 채널 등을 통해 상대국에 대해 주지시킴으로써 많은 효과를 얻어 왔음.

(2) 台灣

- 對美貿易黑字 축소를 위한 계획의 수립·추진
• '92년까지 對美出超額을 1億弗 내외로 축소한 輸出市場多邊化 및 均衡무역 5個年計劃 수정 발표('89年 2月)

* 對美貿易收支: 81億弗('89年)→58億弗('90年)→35億弗('91年)→1億弗('92年)

- 美國과의 自由貿易協定 추진('88年 10月 美·台灣 FTA 協定 체결 제외)

(3) 日本

- 外國의 對日市場 접근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 수차례의 對外經濟對策 및 구조 조정 등의

정책 발표

- '80年代 전반, 6 차에 걸친 對外經濟政策 발표

- '85.4. 제 7 차 對外經濟政策 발표

- '85.5. 경제구조조정 추진 요망 발표

- '85.7. 市場開放行動計劃(Action Program) 발표

- '85.9. 종합경제대책 발표

- '85.10. 내수확대정책 발표

- '86.8. 정부·여당의 경제구조 조정 추진본부 설치

- '87.4. 구조조정에 관한 최종보고서 발표

○市場開放 및 輸入 확대 노력의 대외 홍보·설득

- '85年 이후 政府代表 및 議員使節團이 대거 美國을 방문, 對美經濟會議 및 經濟協力開發機構 등에서 恩貨 切上 추진 지속, 市場開放 확대, Action Program의 조기실시 등을 주지시키는 등 활발한 通商外交活動 전개

- 특히 JETRO는 美國內 7個都市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20個 도시에서 활동중인 美·日親善協會 및 在美日本商工会議所와 더불어 對美通商 摩擦 완화를 위한 로비 활동에 주력

- 日·美 高位事務協議會, 日·日 貿易小委員會, 日·EC 閣僚會議 등 對外通商 교섭 채널을 통한 日本側 노력의 설득

- 최근 들어서는 대규모의 자금을 투입하여 TV,

신문 등 언론매체, 각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日本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노력

나) 輸出市場 多邊化

○世界 主要貿易相對國에 거점 확보를 통한 輸出市場 다변화 지원 전략 수립·추진

- 최근 台灣政府는 企業의 海外進出 확대에 대비,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對外進出 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유럽, 日本, 中南美 등 주요지역에 무역센터 설립 및 輸出加工區 설치를 추진하고 있음.

다) 海外投資

○企業의 海外投資 확대 유도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 台灣은 '87年 이후 政府 주도로 지역별 投資擴大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88年 들어서는 韓國의 投資規模를 상회. 특히 최근 정부허가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공식적인 對亞細亞 투자규모를 감안할 경우 台灣의 對外投資는 韓國의 수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

['88年 1~10月中 海外投資]

- 韓國: 前年同期比 55.8% 감소한 1億 6,400 萬弗

- 台灣: 前年同期比 119.8% 증가한 1億 7,800 萬弗

- 한편 日本도 '85年 이후 通貨 切上 및 무역장벽에 대한 대응과 기업의 국제화 전략 등의 일환

台灣의 貿易센터 및 輸出加工區 設置 計劃

地 域	設 立 目 的	規 模	備 考
뒤셀도르프 貿易센터	西獨 및 여타 EC 제국과의 교역확대를 위한 핵심기지 건설	사무실: 1,400㎡ 전시장: 200㎡	'88年 개장
로텔담 貿易센터	對유럽 화물운송의 요충지에 거점 확보	정보 및 행정관리 센터: 2,350㎡ 전시대: 180부스 창고시설: 6,040㎡ 기타회의실, 사무실	'88年 10月 기공~ '89年 개장 예정
함부르크 貿易센터	東歐圈 및 스칸디나비아 市場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	-
日本東京 貿易센터	對日貿易擴大 전진 기지로 활용	75億엔 투자 (상설전시장, 중소기업 사무실 등)	'89年 개장 예정
파나마 輸出가공구	中南美地域 진출 및 對北美 우회수출 전진기지로 활용	5億달러 투자 (252개 업체 입주 예정)	'89年 개장 예정

으로 海外投資가 급격히 증가

- 특히 제조업분야의 海外 現地生産 投資 급증
(’85年 20億弗→’86年 38億弗→’87年 78億弗
→’88年 75億弗)

* 海外投資 확대를 통한 경쟁국 기업의 현지생산 체제 구축은 市場의 선점과 함께 향후 우리 輸出商品에 대한 덤핑 제소 등 진출국의 對韓 輸入規制를 유도할 것으로 우려됨.

- 특히 日本의 경우 최근 歐美 등 주요시장에 진출한 日本企業이나 그 계열기업 등의 對韓 견제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라) 換率 운용

- 實質實效換率에 기초한 換率의 균형 수준 유지
- ’85年 9月 이후 美 달러 貨에 대한 台灣 달러 貨의 명목절상 폭은 韓國 원貨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나 實質實效換率을 기준으로 할 경우 ’88年 12月 현재 (’85年 9月=100) 거의 균형 수준을 유지(고평가율 3.5%)하고 있음. (韓國은 15.2% 고평가)

○ 여타선진국 通貨에 대한 안정적 換率 운용

- 또한 美 달러 貨를 제외한 여타선진국 通貨에

대해서도 台灣은 韓國에 비해 완만한 변동 폭을 유지함에 따라 企業의 輸出市場 다변화 및 決済通貨의 強勢通貨 전환이 용이하였음. (韓國은 급속한 切下 및 切上을 단행)

마) 對外 弘報 및 로비 활동

○ 政府의 적극적인 홍보전략을 통한 이미지 개선 노력

- 日本政府는 대규모 예산을 各省과 JETRO 등의 기관에 할당, 美國內 언론매체를 동원한 홍보와 各民間연구소 지원 등을 통해 日本에 대한 우호적 여론 조성에 노력

• 日本政府의 海外弘報予算(1983年) : 500億엔으로 總輸出額의 0.14%

○ 國內駐在 外國特派원의 활용 및 外國의 저명인 저널리스트나 오피니언 리더의 초청을 통한 대외 홍보

- 台灣과 日本은 해마다 수많은 해외언론인을 초청, 우호적 보도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國內 駐在 外國特派원에 대한 국내정책의 홍보활동 등을 강화

P.44에서 계속

가 Teleboard System으로 電話 Service를 실시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Philips 社가 Scribo Phone 방식으로 電話 Service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日本은 郵政省(行政用 Audiography)을 비롯하여 9個社에서 14방식의 상품을 개발해 놓고 있다. 먼저 國際電信電話(KDD)가 Letterphone, NTT가 Sketch Phone, Digital Sketch Phone, Sketchboard, Silver Phone Hitsudan, 沖電氣가 沖Telewriting 端末, 三洋電機가 Writing Phone, 東芝가 Drawingphone, 松下電送이 Real Time Color 電子黑板會議 System, 松下通信工業이 Telewriter WG-100과 AV電子黑板 WG-5000을 日本電氣가 Telewriting 端末과 EB-100/200 電子黑板을 富士通가

FACOM-2260 OA Board System을 각각 내놓고 있다.

Telewriting의 용도로는 사업용으로서 사무소와 현장사이에서 圖面을 보면서 협의의 하고, 대형 表示器를 사용하여 本社와 支社間의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黑板으로서 사용하고, 목적하는 상대가 없을 때 용건을 Memo로서 남기는데 사용을 한다. 또한 가정용으로서 Telephone Shopping에 있어서 商品名, 個數 및 配達先의 지도를 보내고, 福祉用으로서 귀나 입을 잘 사용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筆讀으로 통화를 한다.

앞으로 Telewriting은 Computer와 결합하여 손으로 쓰는 情報入力裝置로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